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mplementary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Trade Goods Management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심종석(Chong-Seok Shim)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정희원(Hee-Won Chung)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박사과정

목 차

I. 서론	IV.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II.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목표모델	V. 결론
III.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The Kaesŏng Industrial Park(KIP) is being developed in the region, as a collaborative economic development with South Korea. KIP construction started in June 2003, and in August 2003 North and South Korea ratified four tax and accountancy agreements to support investment. Pilot phas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June 2004, and the KIP opened in December 2004. In the KIP's initial phase, 15 South Korean companies constructed manufacturing facilities. Three of the companies had started operations by March 2005. First phase plans envisaged participation by 250 South Korean companies from 2006, employing 100,000 people by 2007. Based on the 2009, 117 factories were employing approximately 41,000 north' workers and 1,000 south' staff. The industrial park is seen as a way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employ cheap labour that is educated, skilled and speaks Korean which would make communication considerably easier. However the zone still faces a number of obstacles. In the view point of these obstacl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lementary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trade goods management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 to establish portal system based on single window, ii) strengthen user-interface hands of logistic facilities, iii) stable foundations of trade and/or logistic management systems, iv) networking of IT infrastructure with South and North Korea, and so on.

Key Words : KIP, Trade Goods Management Systems, Logistic Facilities, Logistic Management Systems

I. 서론

주지하듯 작금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이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심화 내지 대립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차제에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동의 이해를 담보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북한의 개방과 개혁 가속화 및 대북지원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²⁾ 실물경제지표로서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개성공단의 경우 2009년 말 기준 117개 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계치 기준 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입된 교역물자 규모가 약 2억 5,0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음은 이를 시사한다.³⁾

개성공단 생산활동의 요체는 우선 남한에서 원자재를 반입하여 개성공단에서 가공 후, 이를 재차 남한으로 반출하여 판매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그 핵심이다. 곧 원자재 구매 이후, 남측 관세청에 반출신고 및 이와 별도로 북측 세관에 반입신고 후 개성공단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절차가 수반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공단 내 기업에서 생산이 완료되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⁴⁾를 통한 북한 세관과의 반출신고에 임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측 관세청에 반입신고를 한 이후 남한으로 완제품이 반입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와 과정은 향후 개성공단의 단계별 개발 이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자가 제3국으로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⁵⁾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테면 현재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운용실태를 참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적시할 수 있다. i) 물자 반출입시 남한 세관(관세청)과 북한 세관과의 중복 서류신고, ii) 남북 경제협력사업, 민족간 내부거래라는 개성공단 취지와 남북합의와는 별도로 남북 각 세관의 단절된 업무 프로세스, iii) 북한 IT 산업의 후진성 및 개성공단 내 열

1) 개성공단투자의 정치적 위험 내지 관리방안에 대한 상서는 허은숙, “개성공단 투자의 정치적 위험과 관리방안”, 『아시아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아시아학회, 2007, pp.56-66.

2) 남북 경제협력의 연혁과 연도별 실적에 대해서는 김수일, “남북경제협력이 상호 신뢰구축에 미치는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9, pp.719-733., 경제적 파급효는 한국은행,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은행·국가지식』, 2004. 전문을 참조.

3) 신현윤,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86., 개성공단 사업의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한 상서는 전명진 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개성공단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 pp.4-6., 개성공단 사업규모와 연혁은 『<http://gaescong.lh.or.kr>』[2010. 05.14, 이하 인용 웹페이지(URL) 동일].

4) 『<http://www.kidmac.com>』

5) 제3국 수출 개성공단 물품의 원산지 관정문제 및 주요 교역국에서의 관세상의 대우에 대해서는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활용방안”, 『안암법학』, 제28권, 안암법학회, 2009, pp.490-500., 조명철 외,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정책연구』(05-19),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9, 전문 참조.

악한 IT 인프라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업무 불편 가중, iv)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경우 single window 기반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남한의 전자무역서비스와의 플랫폼 연계 및 전자문서 등의 단일표준화 합의에 따른 문제, v) 정책적 차원에서 현재 양측 세관간 직접적 업무연계가 불가하다고 하는 장애 등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기하여 본 연구는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유관 정부부처간 협의 또는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제도적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내지 보완과제에 대하여 참조 내지 수용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은 개성공단 내 인트라넷(또는 인터넷) 운영 및 교역물자 반출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교역물자 관리 업무의 플랫폼 설계와 남북간 네트워크 연계 시 입주기업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신고내용을 북측 및 남측 세관에 동시에 전송가능 할 수 있는 윈스톱 반출입 신고체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플랫폼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이상의 기능구성 방안과 목표모델에 기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제시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목표모델

1.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그 역할

남북간 개성공단 반출입 유관기관은 이하 <표 1>과 같이 총 1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측이 8개, 북측이 4개 기관으로 각각 기관별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남측은 북측에 비해 관련 유관기관 수가 많아 신고절차도 복잡하고 유사내용의 중복신고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표 1> 개성공단 반출입 유관기관과 주요 역할

구분	유관기관	주요 역할
남 측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수립 및 남북회담, 통일교육·홍보 수행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각종 제도수립, 입주기업지원, 전략물자반출관리, 개성공단사업지원 등
	법무부	•내·외국인 심사, 보호, 관리, 출입국관리 등

구분	유관기관	주요 역할
	관세청	•남북교역 규제개혁, 환경개선 및 관세행정지원(심사확인·검사 확인)
	보건복지가족부	•개성공단출입 남측 근로자 의료행위(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관리)
	국립수의과학연구원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역·확인(동물검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역·확인(식품검역 실시)
	국립식물검역원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역·확인(식물검역 실시)
북 측	통행검사소	•출입인원(휴대품 포함)·차량적재물 심사(양측 군부 통행계획서 심사)
	세관	•반출입 물품심사(물품반출입신고서상의 확인·검사·봉인업무 등)
	검역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역·확인(동·식물검역 실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설립된 북측 법인(각종 행정지도)

위 표에서와 같이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업무 관련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개선 내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다양한 의견조율을 위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경직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제도의 경직성은 한편으로 공단 관련 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필요외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한 바, 이는 달리 개성공단 관리시스템의 기반구축과 그 실효성을 적의 담보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2.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목표모델

효율적인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해 본 연구의 내용으로서 도출 및/또는 설계하고자 하는 플랫폼 내지 서비스의 주요 골자는 사안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 정부부처간 정보공유체계 구성에 대한 사안으로, 휴대 및 통관물품에 대한 수리 정보를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연계 데이터 항목의 세부목록 및 연계방식으로 확정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부처(기관)별 내부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 솔루션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해 목적은 관세청 수리정보의 가공 및 관리를 위한 활용기반을 정착시키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당해 결과로부터 i) 반출신고의 경우 수리정보와 적하목록 제출정보의 연계를 통한 실제 반출물자 선별에 대한 효율성 제고, ii) 반출입 승인정보와 실제 반출물자 정보와의 연계 및 반출입 승인내역에 대한 잔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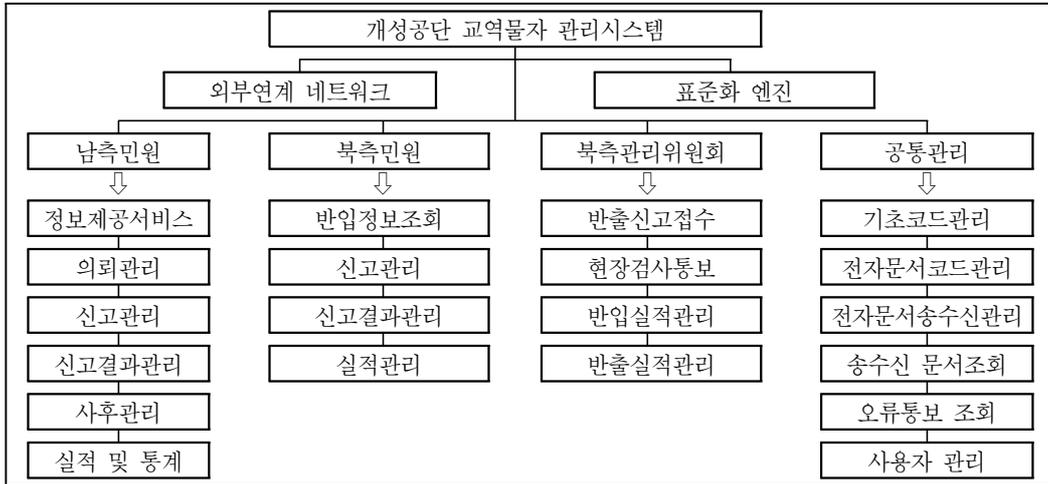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북간 교역물자 승인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사안으로 품목을 통한 HSK 검색 및 HSK를 통한 포괄 또는 개별승인 품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체계화하여 반출입 승인신청에서 최종승인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해 검색서비스를 위한 설계의 주안점은 i) 기술적 검토에 대한 위탁 운영 시 위탁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시스템에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ii) 유형별 승인/불승인 사례, 위법사례 등의 지능형 검색서비스의 마련, iii) 반출입 승인신청 접수단계서부터 최종승인 단계까지 프로세스의 진행정보를 신청인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제시 등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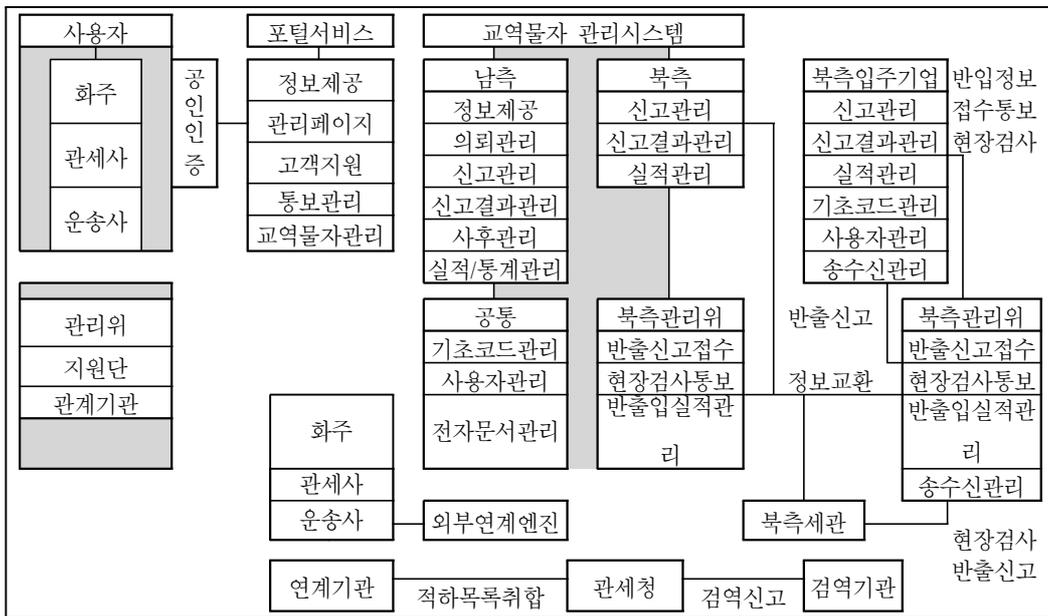
셋째 중요 통관물품 관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안으로, 곧 중요 통관물품 관리시스템은 중요 통관물품, 곧 관리대상품목을 필요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에 그 핵심을 두고 있는데, 당해 기능은 반출입 승인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상 물품정보를 생성하는 것과 반출입 승인 사업자 현황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두고자 한다. 또한 중요 통관물품 반출입 현황정보취합 및 분석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i) 시스템상 관세청 수리정보 및 적하목록정보와 관리대상 물품정보의 취합을 통하여 중요 통관물품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ii) 일정기간 미반출 물품 및 승인사업자 정보를 생성하는 것과, iii) 재반입 도래 물품 및 재반입 기간초과 물품 등의 경고 그리고 위반정보 자동색출기능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민원인 활용기능 제공에 대해서는, i) 반출입 승인대비 반출신고 현황 조회, ii) 재반입 대상 물품조회, iii) 재반입 대상 물품 및 관심요망물품 현황 조회 및 위치정보 조회의 기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남북교역 통계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안으로 그 내용은 i) 사업자 분류체계 수립, ii) 남북 물품 승인정보 시스템 연동, iii) 기초 코드 관리, iv) 민원인 제공기능 개발 등이다. 이상의 개별 사안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기능구성방안



〈표 3〉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목표모델



III.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과제

1.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의 문제점

1) 개성공단 법제상의 문제점⁶⁾

(1) 복잡한 남측 제도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하고 있으나, 남측 기업의 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민족내부거래라는 원칙적 시각에서 국내거래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은 개성공단으로의 물자 반출입 절차를 기본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거래가 아닌 국가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북한과의 교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반출입의 승인 및 수송장비의 운행승인 등 국가간의 거래에서 그 사례를 찾기 힘든 사전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곧 개성공단으로의 물자 반출입은 국내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역거래절차를 준용하며 추가적으로 사전승인절차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업무 부담이 존재하고 있다.

(2) 모호한 북측 제도

개성공업지구세관규정은 신고절차를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반출입신고서로만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출입신고서의 양식이 남측 수출입신고서에 비해 매우 간단한 특징이 있다. 아울러 세관등록 및 운송수단등록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양식에 대한 제출방식 및 처리기한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민원인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고, 이로부터 북측 세관의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벌금규정의 경우 구체적인 위반사례에 대한 적용기준 내지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의 자의적 벌금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통행검사소에서 세관규정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은 단편적 실례라 할 수 있다.

6) 개성공단 관리를 위한 주요 법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8.12.3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9.07.30), 개성공업지구출입-체류-거주규정(북측 2003.12.11), 개성공업지구세관규정(북측 2003.12.11), 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2002.12.08) 등이 있다. 개성공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상세는 박정원,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회, 2008, pp.119-127.

(3)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

남측 제도가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반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북측제도는 단순한 반면 모호하고 자의적인 측면이 다분하다. 이는 민원인(기업)의 입장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개별적 대응과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더불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남측 제도의 복잡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단계를 축소하는 노력과 동시에 개별 절차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중복성을 탈피하기 위한 순기능적 접근이 동시에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측 절차간 단계별 중복뿐만 아니라, 남측과 북측에서 진행되는 절차간 통합 또는 상호 활용의 방법을 통하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도 적의 고려되어야 한다.

2)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상의 문제점

(1) 북측의 신뢰도 및 통행 의존성에 따른 한계상황

북측의 예측 불가능한 일방적 결정에 의한 환경악화로 인해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물자의 반출입 업무는 기본적으로 차량 및 인원통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량 및 인원통행은 당국간 합의서·정전협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관세법 등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에 신고절차가 존재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2) 개성공단의 특수성

북측의 개성공단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일부의 사전승인(물자인원) 단계 존재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양측의 동일내용에 관한 이중신고, 남측 반출신고(수출신고) → 북측 반입신고, 북측 반출신고 → 남측 반입신고(수입신고), 본·지사간 거래임에도 수출입 절차가 부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의거하되 남북 합의를 우선하여 특례 적용 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극복하여야 할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신고서류와 실물간의 차이, 육로운송으로 인해 사전신고 시 실물과의 차이 등 신고내용과 실물과의 차이발생은 본질적으로 선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는 공히 입주기업이 지켜야할 원칙이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해결하

7) 이혜련, “개성공단 출입체류 실효적 보장방안 강구”, 『통일한국』, 통권 제304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 pp.100-101.

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유관기관의 존재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 외에 개성공단 관련 남측 기관은 법무부·관세청·검역기관·지자체(군) 등의 다수가, 북측은 총국·출입국사업부·통행검사소·세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이 다양한 관련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관련 기관은 상호 독립된 조직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수행방침 및 제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그 결과 반출입 절차가 복잡하고 화물관련 유사정보를 중복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4)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입주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북측의 출입제한에 따른 반출입 업무장애·대행사 수수료 과다·반출입 승인 등 절차의 복잡성·관련 유관기관의 과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면, i) 수출입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대행사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점,⁸⁾ ii) 직접신고의 경우 여러 신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도입비용 과다하다는 점, iii) 반입 후 원산지신고 및 소요량 신고업무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점, iv) 관련서류 장기 보관에 따른 보관장소 및 비용의 부담 발생이 현격하다는 점, v) 개성공단 반출입 업무 시 입주기업과 대행사 간 운송의뢰 및 반출입 신고의뢰 시 이메일·전화팩스 등을 이용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서류분실·입력오류·중복입력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운송신고 시 서류 간소화·대행사 수수료 인하·업무용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관리위원회 업무 한계성에 기하여 관련 시스템 부재로 인해 수작업에 의해 반출입 실적 및 통계작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북측 반입물자에 대한 관리기능 및 데이터 부재로 인해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은 이에 부수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8) 「<http://www.gaesong.net/korean/portal.php>」

〈표 4〉 개성공단 주요 업무 프로세스별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업무 프로세스		주요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업무		한계상황	⇒ •북측 신뢰도 의존성에 따른 한계상황
•물자반출입 승인 •수송장비 운행승인 •출입통행계획 승인	사전 승인	개성공단의 특수성	⇒ •통일부 사전승인 단계존재(양측 이중신고) •본지사간 거래에도 수출입절차 병행 •신고내용과 실물과의 차이 발생
•관련서류작성 •운송 및 신고의뢰 •반출입신고 •적하목록신고 •화물검역신고	남측 반출입	다양한 유관기관의 존재 (제도의 경직성)	⇒ •남측의 관련 기관이 다수(효율성 결여) •반출입 절차가 복잡(화물관련 정보 중복작성) •제도개선에 고비용·장기간 소요(제도 경직성)
•화물검역신고 •반출입신고	북측 반출입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 •출입불편에 따른 교역물자관리 업무 장애 •대행사 수수료 과다 및 절차가 복잡 •정확한 자료전달의 어려움 •반입 후 원산지신고 및 소요량 신고업무복잡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의 상존해 있는 실정
•개성공단 통계작성 •주요 물자관리	관리위	관리위원회한계	⇒ •수작업에 의한 실적·통계작성(반입정보부재)

2.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의 과제

환경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주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은 본 고의 목적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개선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한 바, 따라서 개별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아닌, 각 현황과 문제점의 핵심 요인과 요구를 이슈로 정리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개선방향을 거시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여 당해 개선방안의 기본프레임을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다만 도출된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간 및 관련 유관기관간 대승적 합의를 전제하고, 이에 단기적 해결 가능한 목표에 한정함을 참고한다.

〈표 5〉 개성공단 주요 현황별 이슈와 거시적 개선방향

주요 현황	주요 이슈사항	개선방향	개선과제
한계적 상황존재	⇒ 환경개선 고려한 통합프로세스 구현	⇒ 인터넷연계, 자율통행 처리방안 강구	[개선과제 I] 포털기반 반출입 업무 일괄처리체계 확립
개성공단의 특수성	⇒ 남북 통합 교역물자 프로세스 요구	⇒ 교역물자 프로세스 통합처리 원스톱시스템 운영	[개선과제 II]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수립
	⇒ 신고절차 간소화 및 중복활용 유도	⇒ 기초(IV, P/L) 정보활용을 통한 신고정보 자동연계	
다양한 유관기관 존재	⇒ 남측 세관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 제도개선방향 도출하되 기존 프로세스 유지 활용방안 도출	[개선과제 III] 제도 개선방향 및 남북합의사항 도출
제도의 경직성	⇒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 교육·홍보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개선과제 IV]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입주기업 애로사항·요구	⇒ 민원인(화주) 중심 통합관리시스템 환경	⇒ 민원인 중심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재구성	
관리위원회의 업무 한계성	⇒ 관리위원회 중심의 관리시스템 운영	⇒ 관리위 중심 남북 프로세스를 연계한 관리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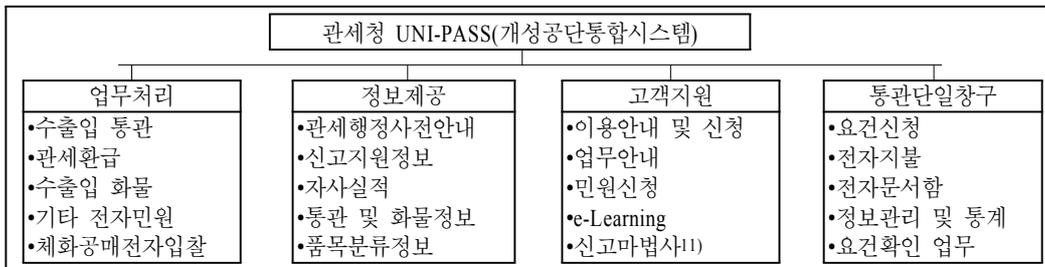
1) 포털기반 교역물자 관리 일괄처리체계 확립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반출입 업무 포털구축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합하여 개성공단 반출입 신고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당해 업무의 가용이 항시적이어야 한다. 이는 개성공단 핵심업무인 교역물자 관리업무를 기반으로 활성화한 이후 개성공단 전체 포털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 바,⁹⁾ 그 내용은 개성공단 반출입 업무공지 및 안내, 복잡한 절차에 대한 교육·홍보·온라인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여 민원인의 능동적 참여율을 제고하여 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성공단통합시스템은 업무 및 프로세스 중심의 서비스로서 필요한 대민서비스는 각 관련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능동적 참여도가 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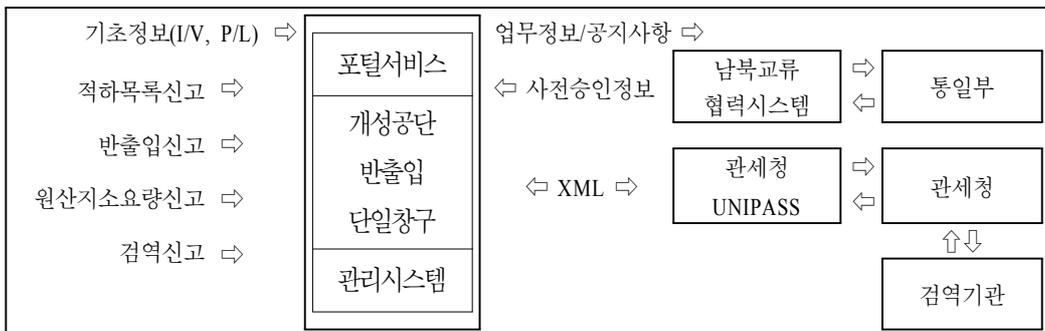
9) 개성공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노승재, “개성공단 사업평가와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제정치연구」, 제9권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pp.10-21.

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창구에서 제공하여 참여율 상승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 관세청 UNI-PASS의 경우¹⁰⁾ 마이페이지·업무처리·정보제공·고객지원·통관단일창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통관 관련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목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된다. 참고로 관세청 UNI-PASS의 개성공단통합시스템상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업무 및 정보서비스의 개요는 <표 6>과 같고, 이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의 목표모델은 <표 7>과 같다.

<표 6> UNI-PASS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업무 및 정보서비스의 개요



<표 7> 포털기반 반출입 업무 서비스의 목표모델



2) 통일부 사전승인정보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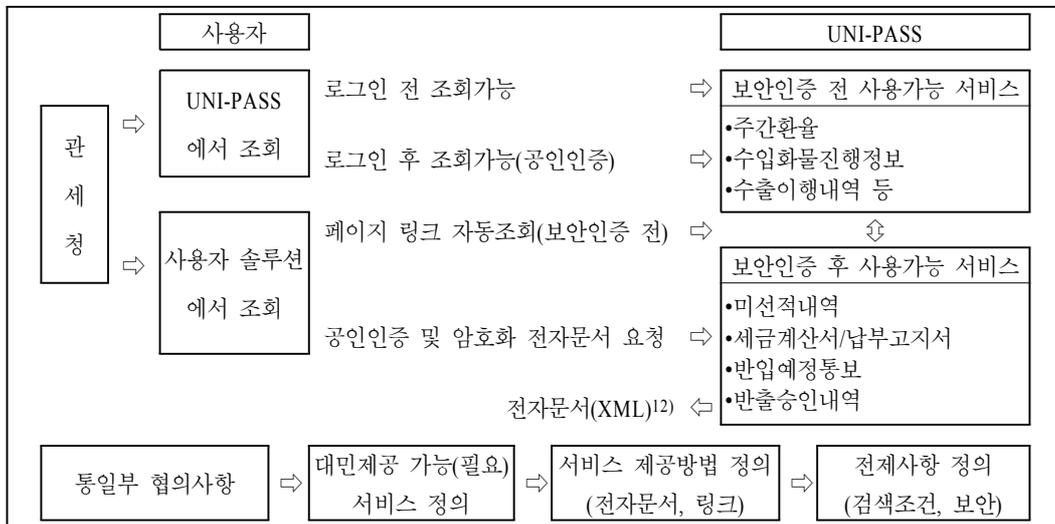
통일부 사전승인신청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시행하되, 다만 반

10) 「<http://portal.customs.go.kr>」 및 「<http://www.unipass.or.kr>」

11) 신고마법사는 민원인이 직접신고가 가능토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서 신고서 작성방법을 각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신고서 작성 연습 포함).

출입 업무 시 필요한 사전승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개성공단 관리시스템에서도 당해 내역의 조회가 가능해야 효율적일 것이다. 참고로 관세청의 경우 주간환율·수입화물진행정보·수출이행내역 등 대민제공 서비스는 아무런 제약없이 관련번호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특정 화주만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공인인증과 암호화를 통해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면 이하 <표 8>과 같다.

<표 8> 통일부 사전승인정보 연계방안 목표모델



3) 사용자 인증방법 강화

개성공단통합시스템은 사용자 인증방법으로 현재 ID/PW를 사용하고 있고, 달리 관세청은 ID/PW 방식과 인증서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동 관리시스템은 B2B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ID/PW로도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B2G 영역으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인증서 기반인증과 SSO(Single Sign On)를 추가해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SSO의 장점은 사용자 포털에서 단 한 번의 인증만으로 다수의 업무 시스템 로그온이 가능해 사용자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SSO 인증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온 연동처리 시 인증정보 암호화 적용으로 인증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당해 인증서와 ID/PW 방식을 비교하면 이하 <표 9>와 같다.

12) 전자문서 방식일 경우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추가로 전자문서(XML) 송수신 모듈이 필요하다.

<표 9> SSO와 ID/PW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구분	SSO 인증서	ID/PW
특징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증서에 의한 인증	•사용자의 지식에 의한 인증
방법	•사용자 PC 저장인증서와 PIN으로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을 통한 인증	•ID/PW 입력 서버검증 후 인증
장점	•인증서(개인키)가 유출되지 않을 경우 타인 도용 불가 •전자서명, 암호화 등 PKI 기반의 다양한 메시지 보안기능 적용이 가능	•변경이 용이(소유가 불필요) •권한위임이 가능
단점	•인증서 설치가 필요(해킹스파이웨어에 의한 인증서 및 PIN 도난 가능) •사실인증서 사용 시 CA, RA를 비롯한 인증 인프라 구축 필요 •공인인증서 사용에 인증서 검증을 위한 개발 및 다중 인증서 수용 부담	•망각·유출(PW 유추가 가능) •PW 관리불편(주기적 변경 필요) •해킹에 의한 도용

이상 위에서 도출한 관련 이슈에 기하여 기대할 수 있는 파급효과와 각 목표모델에 대한 전제사항을 도식화하여 요약정리하면 이하 <표 10>과 같다.

<표 10> 포털서비스 제공(목표모델)에 따른 기대효과와 전제사항

관련 이슈사항	기대효과	전제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절차 간소화 및 중복활용 유도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 교육·홍보 •민원인 중심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통합관리서비스 신고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의 어려움 해소 •업무안내 및 신고지원 등 대행사 의존도가 저하되어 비용절감 •대민서비스 강화로 관리시스템의 참여도가 제고되어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부 등 유관기관 협의 존재 •민간운영이 필연적이고 아울러 콜센터 운영이 추가로 요구됨 •사용자 인증방식 강화(공인인증 및 SSO) •당해 서비스의 유료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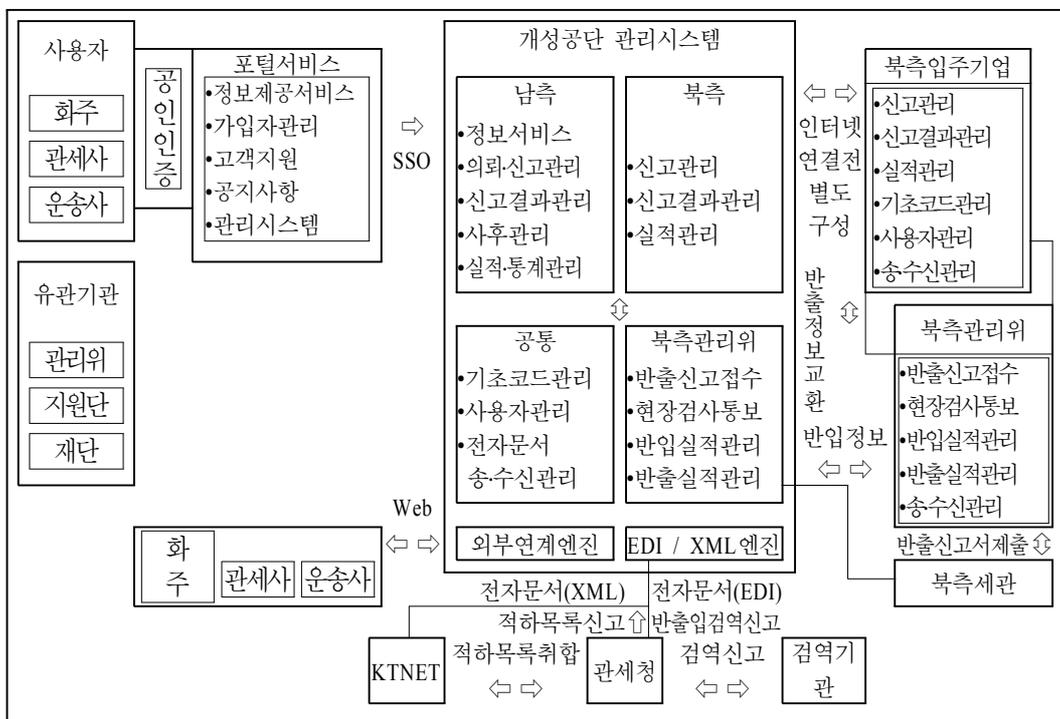
IV.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1. 기대효과 및 전제사항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개선방향의 핵심지표는 운송사 중심 서비스에서 민원인(화주) 중심

서비스로 개선하되 그 구체적 방향으로 현재 기능 중 주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현실에 부합하게 수정 후 사용하고, 이외 이슈사항 및 주요 업무에 필요한 신규기능을 추가로 설계하여 수정·재사용 기능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스템의 목표모델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¹³⁾

<표 11> 포털서비스 제공(목표모델)에 따른 기대효과와 전제사항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기하여 관련 이슈사항을 대별하면, i) 남북을 연결한 교역물자 관리 프로세스 요구, ii) 신고절차 간소화 및 중복활용 유도, iii) 민원인(화주) 중심의 통합된 관리시스템 환경 필요, iv) 관리위원회 중심의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다.

같은 시각에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예상하면, i) 개성공단 반출입 관련 통합서비스로 신고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의 어려움 해소, ii) 민원인의 직접신고로 반출입 비용절감, iii) 민원인과 대행사간에 정확한 업무처리 가능, iv) 관련 문서보관에 따른 부담 해소, v) 북측 관리위원회의 반출입업무 전산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vi) 북측 입주기업에 사용자 솔루션의 배포

13) 개성공단 물류관리시스템의 실질 사례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서문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 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4권, 한국해운물류학회, 2005, pp.32-37.

로 반출신고 시 표준서식의 적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vii) 남북의 반출입자료 연계로 단절 없는 업무처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북측 협의사항으로서, 곧 모형을 이용한 데이터 전달과 북측 반출신고서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위에 제출 및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북측 세관 전자신고 할 수 있는 기반구축 등이다. 아울러 북측 관리시스템의 별도 운영에 따른 운영 부담 및 민원인의 직접신고를 위한 업무 및 작성방법 안내 또한 이에 결부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위탁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아울러 관리위원회 중심의 남북 프로세스 연결이 선결 및 네트워크 환경의 개선에 대비한 운영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효율적이고 자생적 관리시스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의 위탁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내용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내부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간 직접연계를 통해 당해 시스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편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남북 프로세스 연결에 관한 사안도 긴요한 실정인데, 당해 내용의 핵심은 북측 관리시스템의 모든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취합·관리하여 남측 관리시스템과 동기화를 통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하 개선방향과 개선내용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과 개선내용

개선방향	개선내용
민간운영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성·효율성 제고 •민원인 영역과의 시스템간 직접연계가 가능해져 시스템 만족도 향상 •통일부의 관리·감독 및 통제절차 마련
관리위 중심의 남북 프로세스 연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위 중심으로 관리시스템 모든 자료를 관리위가 취합·관리 •남측 관리시스템과 동기화를 통해 상호 연계망 구축
네트워크 환경개선 운영방안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극적으로 인터넷 환경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네트워크 환경의 단계적 개선에 대비한 운영방안 확보

요컨대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이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로 개선되면 정부기관의 운영에는 한계가 있고, 보다 전문적인 민간단체 및 기업에 위탁·운영해야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른 운영측면에서의 실익은 운영·관리에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외부사용자와 직접 연계하는 채널의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유관기관 연계 시 한계성 존재하고,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비용의 예산확보의 어려우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운영상 자료유출 가능성 및 보안관리를 위해 통일부의 관리·감독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3. 관리위 중심의 남북 프로세스 연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위를 중심으로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남북 프로세스를 연결하여 일괄된 관리업무가 가능하도록 당해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 요소인데, 그 핵심요건은 북측 관리시스템의 모든 자료를 관리위가 취합·관리하여 남측 관리시스템과 동기화를 통해 상호 연결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개성공단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면 북측관리위도 연계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므로 관리위 중심의 남북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측 관리위원회에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 운영하는 것과 향후 시스템 통합을 위해 당해 데이터 동기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전제조건으로 부각된다.

4.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요건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전제사항 내지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시스템 연계를 통한 개성공단 업무 통합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현재 통일부·관세청·남북출입사무소·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요건확인기관 등 개성공단 반출입 관련 다양한 기관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단절없는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반출입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개성공단 내 IT 인프라 기반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¹⁴⁾

14) 개성공단 내 남북 IT 협력방안의 기본 골자에 대해서는 양문수, “개성공단에서 바라본 남북 IT 경제협력 발전방안”, 『지역정보화』, 제47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7, pp.27-29., 최석범 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전자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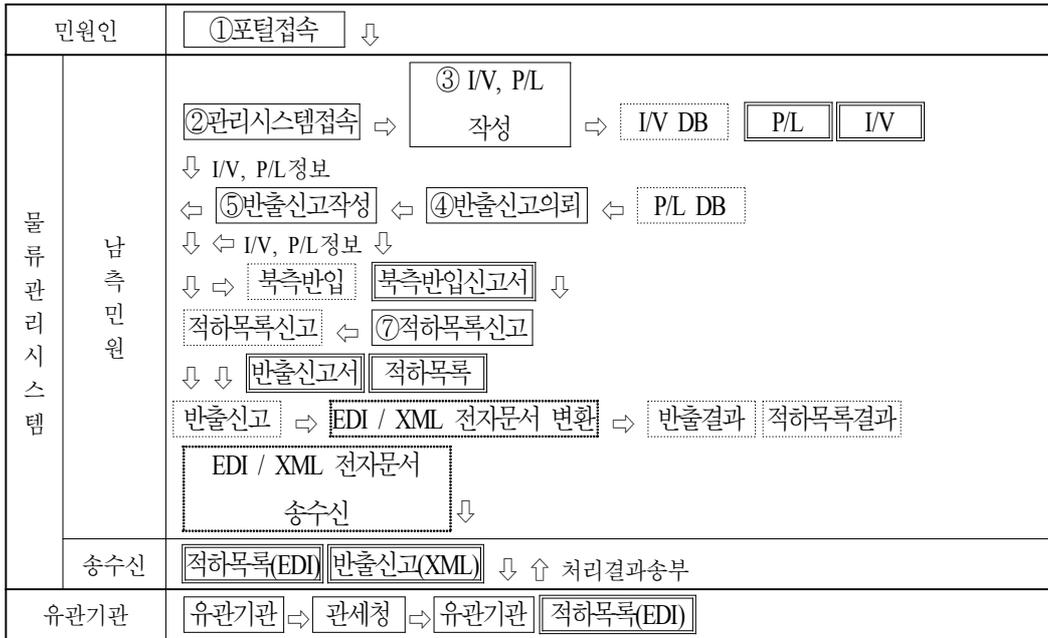
곧 현재 개성공단 내 활용가능한 통신라인을 이용한 각양의 모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을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시의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IT 환경에 적의 부합할 수 있는 취지에서 모델, 인트라넷, 인터넷 등 단계적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발전방안도 동시에 확보·수립되어야 한다. 셋째는 개성공단 반출입 업무 특성을 반영한 통관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곧 신고서 정정 시 정정항목을 추가함에 따른 별점의 미부과 방안이 요구되는데, 그 배경은 육로통관 특성상 물품이동이 신속하게 처리되고는 있으나, 사전신고제에 따른 관세청 수출입신고 시 그 정정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넷째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반출입 사전신고 업무에 따른 수출입 물량 불일치 개선에 필요한 소위 사후통관물량 확정제도 도입도 신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세부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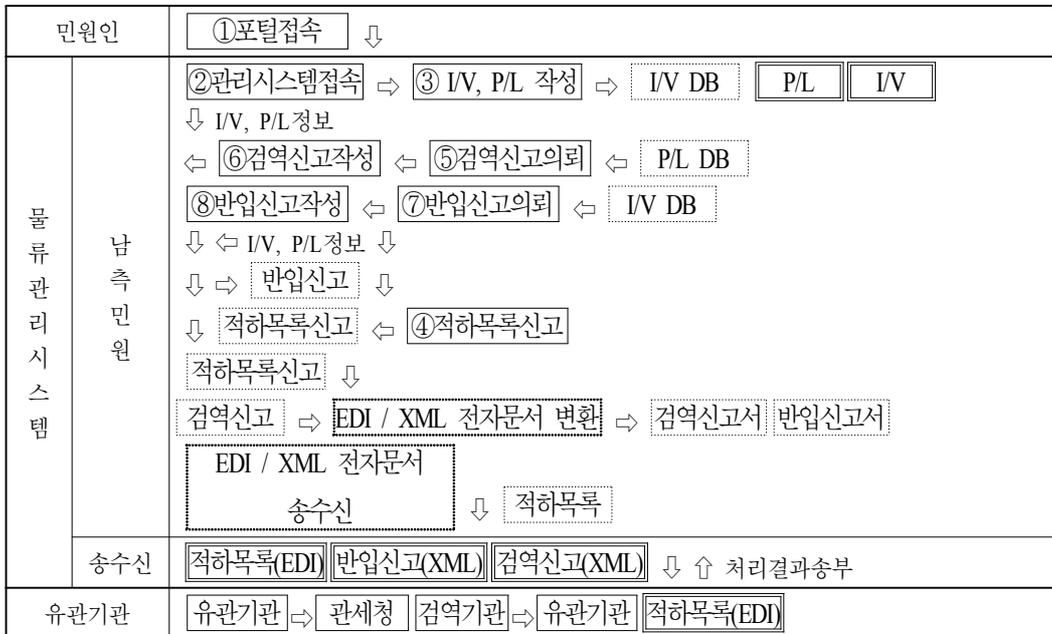
1) 남측 반출입 업무

남측 반출업무 개선의 핵심내용은, i) 남측반출업무 관련 모든 신고작업을 한 곳에서 처리하므로 업무처리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ii) 한번 입력한 I/V, P/L 정보를 통해 모든 신고서가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점(복측 반입신고서 생성 포함), iii) 반출신고결과 자료를 관리하여 문서보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iv) 민원인 직접신고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표 13> 남측 반출업무 프로세스 목표모델



<표 14> 남측 반입업무 프로세스 목표모델



다만 이 경우 고려사항은 i) 민원인 직접신고가 가능토록 업무 및 작성방법 안내가 필수적이라는 점, ii) 품목이 많은 I/V, P/L 등록 시 문서작성에 대한 기본 플랫폼 내지 편의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iii) 품목분류코드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 iv) 적하목록신고는 EDI를 이용하므로 송수신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남측 반출업무에 관한 프로세스의 목표모델을 제시하면 위 <표 13>과 같다. 참고로 남측 반입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핵심내용과 고려사항 또한 이에 준한다.

2) 남측 사후신고 업무

남측 사후신고업무 개선사항의 주요 골자는 i) 원산지신고서 및 소요량신고서의 전산을 이용한 작성으로 업무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ii) 수작업에 비해 정확한 신고서 작성 및 소요량의 잔량관리가 가능하며, iii) 전산관리에 따른 세관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고려사항은 전산관리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제출(P/L)로 관세청 업무변경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업내부시스템에 있는 품목 및 소요기준정보 연계방법을 적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 남측 사후신고업무 프로세스 목표모델을 제시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남측 사후신고업무 프로세스 목표모델

원산지신고	민원인	반입정보 반입정보 반입정보 ⇨ ①원산지신고서 작성 ⇨ 출력 ⇨ 제출 ↓ 원산지신고서 ↓
소요량신고	민원인	반출결과 반입결과 ⇄ ⇄ ⇨ ①소요량신고서 작성 ⇨ 출력 ⇨ 제출 반입정보 소요기준정보 ↓ ↓ 소요량신고서 ↓
유관기관		북측세관 ⇐ ⇐

3) 북측 반출입 업무

북측 반출입업무 개선사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i) 북측 반입실적 및 통계작업

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ii) 북측 반출업무 시 관리위원회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iii) 북측 반출신고서 표준서식 배포 및 사용으로부터 이에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iv) 데이터 신고로 인해 반출실적 및 통계작업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 v) 입주기업의 반출입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자료검색이 용이하고 실적 및 통계자료 취득이 편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마찬가지로 고려사항은 i)단일 네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인해 입주기업에 사용자 솔루션을 배포해야 하고 이에 따른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ii) 네트워크 연결 전에는 모뎀(북측협회사항) 등을 이용하여 전송해야 하고, iii) 북측관리위원회에 서버 및 시스템 운영인력이 요구되고, iv) 북측 관리위원회 중심의 북측 반출신고서 전자신고처리(P/L신고제 도입)에 따른 사전협의를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도해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북측 반출입업무 프로세스 목표모델

반입	관리위	①반입정보연계 ⇨ 반입정보 ⇨ ②반입정보조회 ↓ 모뎀
	입주기업	④반입정보조회 ⇨ 반입정보 ⇨ ③반입정보연계
물류관리시스템	입주기업	①반출신고작성 ⇨ 반출신고 ⇨ ②반출신고전송 ⇨ 반출신고서 ⑧현장검사접수 ↑ ↑ 접수통보(모뎀) ↓ ↑
	관리위	반출신고 ⇨ ③반출신고접수 ⇨ ↓ ⑦현장검사통보 ↓ ↑ ④반출신고서출력 ⇨ 반출신고서 ⇨ ⑤반출신고서제출 ⇨ ⑥현장검사접수 ⇨ 반출결과 ↓
유관기관	북측세관 ⇨ ↑	

V. 결론

논제에 기하여 이상과 같은 분야별 목표모델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반출입 업무와 관리시스템 분야로 나누어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과제는 i) 포털 기반의 반출입 업무 일괄처리체계 확립, ii)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수립, iii) 제도개선방향 및 남

복합의사향 도출, iv)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등이다. 이에 부수하여 개별 대과제별 핵심지표와 세부이행과제에 관한 업무 및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은 차례로 i) 대 민원인 중심의 포털 서비스 구축에 관하여 정보제공 서비스 기관과 협의 및 포털서비스 플랫폼 설계, ii)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원인 직접신고가 가능토록 업무 및 작성방법 안내, 교육·홍보, 남측민원·북측민원·관리위원회 기능의 보완, 공통관리 시스템 수용, 외부연계엔진, 송·수신엔진, 북측입주기업용 사용자 솔루션 구축, iii) 제도 개선방향 및 남북합의사항으로서 법·제도·절차 등의 정비방향 제시와 남북 협의사항 도출, iv) 민간 위탁운영, 관리위원회 중심의 남북 프로세스 연결, 네트워크 환경 개선에 대비한 운영방안 확보 등에 기하여 민간위탁운영 절차 및 방안 수립, 양측의 데이터 동기화, 데이터 동기화 모듈, 단계별 운영방안 수립, 각양의 모뎀을 이용한 데이터 전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고는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항목 내지 요목별 목표모델을 제시하고, 당해 실현가능한 관리시스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업무·시스템·제도 분야의 개선과제를 이상과 같이 제시하였다.

당해 개선과제의 주요 골자는 목표모델 제시 및 과제선정을 위하여 수출입 및 반출입 업무의 실무적용상의 효율성을 적의 고려하고 IT 기반을 연동하여 목표업무 처리체계는 포털 기반의 반출입 업무 일괄처리체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개선목표는 반출입 업무 통합처리시스템을 근간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당해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와 더불어 연구결과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안정적 운영방안을 이에 결부하였다. 본 고의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개성공단 교역물자 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실무적용상 참조 내지 수용 가능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소기의 역할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활용방안”, 「안암법학」, 제28권, 안암 법학회, 2009.
- 김수일, “남북경제협력이 상호 신뢰구축에 미치는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국제 지역학회, 2009.
- 노승재, “개성공단 사업평가와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제정치연구」, 제9권 제1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06.
- 박정원,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2 호, 서울국제법연구회, 2008.
- 서문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 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4권, 한국해운물류학회, 2005.
- 신현윤,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양문수, “개성공단에서 바라본 남북 IT 경제협력 발전방안”, 「지역정보화」, 제47권, 한국지역정 보개발원, 2007.
- 이혜련, “개성공단 출입체류 실효적 보장방안 강우”, 「통일한국」, 통권 제304호, 평화문제연구 소, 2009.
- 전명진 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개성공단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
- 조명철 외,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정책연구」 (05-19),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9.
- 최석범 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한국은행,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은행-국가지식」, 2004.
- 허은숙, “개성공단 투자의 정치적 위험과 관리방안”, 「아시아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아시아 학회, 2007.

「<http://gaeseong.lh.or.kr>」

「<http://portal.customs.go.kr>」

「<http://www.gaesong.net/korean/portal.php>」

「<http://www.kidmac.com>」

「<http://www.unipass.or.kr>」